

경북 농산물...수출액 사상 최대

농식품 수출 4억7845만5000달러
포도 59.0%, 복숭아 39.7%,
벼섯 20.5% 등 평균 20.9% 늘어



올해 경북도의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4% 정도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11월 기준 경북도의 농식품 수출액은 4억 7845만5000달러로 지난해 4억6088만3000달

러보다 3.8% 늘었다.
품목별로는 포도 59.0%, 복숭아 39.7%, 벼섯 20.5%, 배가 14.2% 등 신선농산물이 평균 20.9% 늘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청도 감발랭이와 사인머스켓(포도)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높은 가격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가공식품에서는 중국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조미김이 92.6% 증가했고, 김치류가 9.6%, 주류가 3.8%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64.9% 증가했으며 대만 49.8%, 말레이시아 28.5%, 캐나다 21%, 싱가포르 18.2%, 인도네시아 15%, 미국 9%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도의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최초로 5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올해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성과를 돌파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도는 중국, 베트남, 캐나다에 해외상설 안테나를 운영했다.

지역 농식품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으며 해외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적극적인 해외 홍보 전략 등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검역문제로 수출에 차질이 잦았던 대만에는 대만의 검역총괄부서인 식물검역원을 김주령 농식품유통국장이 방문해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고질적인 검역 문제가 해결돼 올해 대만수출이 49.8%나 늘었다. 김성용 기자



카풀 퇴출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 추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풀 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카풀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영덕·삼척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해라

영덕·삼척 주민들
“정부는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예정
구역고시 해제하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한 문재인정부는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 고시를 즉각 해제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정부가 ‘탈핵’을 공약한 점, 해당 지역주민들의 핵발전소 신축 반대여론이 높은 점을 들어 아직 지정고시가 해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재성 목사는 “탈핵 공약을 했다가 당선되고 나면 빈 약속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순을 밟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경자 노동당 대변인은 “정부 출범 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고리 1호기 원전 영구정지 이외에 지켜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고시해제를 연내에 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통보하고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며 “연내에 고시를 해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 항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수 기자



영덕주민과 삼척시민이 토포를 문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종교환경회의 등은 20일

대구은행 퇴직임원, ‘부당해고 외부 압력설’ 제기...논란 가열

강요에 사직서 제출 해고 부당
경북노동위, 원직 복직 결정

경북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받은 대구은행 전 임원 5명이 20일 “김태오 DGB금융 지주회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원직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은행 전 임원 5명은 이날 오후 2시 대



구 북구 침산동 대구은행 제2본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오 회장의 중용 하에 은행장 내정자가 단지 외부에 보이기 위한 사직서 제출이고, 추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강요에 의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해고 다음날인 7월 5일과 8월 8일 진행된 김태오 지주회장과의 두 차례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외부기관 압력설을 제기했다.

이들이 인용한 당시 녹취에 따르면 김태오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H증권 인수승인을 받으려면 전 임원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고 조직을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정부위원회 여당 국회의원도 전 임원의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임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1차 면담과 2차 면담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김태오 회장이 동의하면 녹취록 전부

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전 임원 5명은 지난 7월 4일 사직서 제출 형식으로 해고됐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1월 20일 이들의 해고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에 복직 시킬 것을 결정했다.

현재 대구은행은 오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명훈 현 은행장 권한대행 이후 체제의 은행장 후보 선정을 두고 지주 이사회와 은행 이사회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은행 이사회는 행장 후보를 선정해 지주 이사회에 통보할 예정이지만 지주 이사회는 행장 후보 선정 권한은 내부 규정상 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추천위원회(자추위)에 있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양상이다.

김태오 회장이 은행장까지 겸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대구은행 내부 출신을 배제하고 외부인사를 영입하려는 것이란 주장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김 회장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조여은 기자

김천지역 농협조합장, 동문화 빌미로 향응 제공 ‘의혹’

조합원에 4억원대 선물
전국조합장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김천지역의 한 농협조합장이 고교 동기 야유회에서 조합원과 동기생들에게 향응을 베풀고 전체 조합원들에게 4억원대의 선물을 제공하는 등 내년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농협 등에 따르면 김천의 A농협조합장은 지난달 14일 김천 B고교 동문회원 등 36명과 함께 충남 보령군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부부동반으로 실시된 이날 야유회 참가자 중 10여 명이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보령군에 있는 식물원을 둘러본 후 시내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 A조합장과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보령군 C농협조합장이 동행해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A조합장을 다시 오시게 해 달라”며 “보령의 관광지인 원산도에 내년 좀 다리가 완공된다. 그 때 원산도에 다시 놀러 오라”는 요지로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자리에서 동문화 D회장도 내년 선거와 관련 A조합장의 지지를 당부했다고 동기생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D동문화장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현지의 C조합장은 5만원 상당의 젓갈 세트와 소금(10kg)을 선물했다.

야유회를 마친 후 김천 A농협조합장은 보

령의 C농협에 젓갈세트 7318개(개당 5만7870원)를 주문했다. 4억2300여만원어치다.

농협 관계자는 “이 선물세트는 지도사업비 예산으로 구입했다. 최근 7318명의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A조합장의 보령 야유회 동행은 조합장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김천지역 경제도 어려운 데 타 지역 상품을 수억원 어치나 주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동문회를 빌미로 평소 친분이 있는 외지 조합장을 통해 지지 발언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은 사전선거 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A조합장은 “매년 한번 씩 외부 야유회를 다닌다. 일부 지인들의 지지 발언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은진 기자

물이 좋아 “장수춘”으로 소문난 예천(醴泉)의 신비로운 기운을 드립니다!



고서에 기록된 醴泉의 신비로움!

“태평스러운 시대에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단 물이 솟아나는 샘” - 예 기
“봉황은 벽오동나무에만 내려 앉고, 대나무 열매만 먹고, 오직 醴泉 물만 마신다” - 장 자
“굼주림과 다툼이 없고, 병마와 재앙이 피해가는 신승지” 중 한 곳! - 정감록

회사,기관 단체 선물용/행사 선물용으로 추천합니다.



아로니아즙, 분말

김 표고

예천 집콕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큰 소백산 자락에서 생산된 예천사과는 육질이 단단하여 저장성이 좋고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천장터(예천군 농산물산물 쇼핑몰) <http://www.ycjang.kr>
주문 및 상담안내 : 054-650-6280 예천군 농산물 유통마케팅담당 054-650-6280

대구시, 가족친화기업·기관 인증

‘일·가정양립 실천포럼’ 개최
39개 기업·기관 ‘인증서’ 전수

대구시가 21일 오전 10시, 대구삼성성장조력 퍼스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대구일·가정양립 실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가족친화인증서 시상, 인증서 전수,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에 이어 대구시 일·가정양립 추진정책 안내와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가족친화인증서’는 39개 기업·기관의 가족친화기업에 전수된다.

‘가족친화기업’이란 평소 직장내 출산, 육아휴가·휴직의 양육지원과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심사를 통해 매년 12월에 인증한다.

인증서 전수대상 기업·기관은 다음과 같다. 신규인증 받은 기업·기관은 총 18곳이다.

기업은 △에이스이노텍㈜ △㈜평화고속관광 △㈜솔라라이트 △㈜신라시스템 △㈜덕진섬유 △㈜도야지식품 △㈜마인드엘리베이션 △성립첨단산업㈜ △㈜경동이앤지 △수테크 △정화실업㈜ △㈜영남엘리디라iting △제이엘 △㈜프드웰 등으로 14곳이 신규인증을 받았다.

공공기관 4곳은 △공공군수사령부 △대구

경북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함께하는 마음재단 등이다.

인증연장은 11곳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가정복지회 △크레텍㈜ △신우폴리켄 △㈜창일 △삼해인더스트리(주) △동구청 △서구청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이다.

재인증 받은 곳은 10곳으로, △대성에너지(주) △㈜떡파는사람들 △㈜타산코트렌 △㈜삼진보안 △세계실업(주) △㈜삼영이앤티 △신용보증기금 △대구시청 △남구청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이다.

또한, 가족친화 및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시상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심사를 통해 매년 12월에 인증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주제로 뮤지컬을 제작해 직장교육 시 활용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거리캠페인과 노무·심리상담을 개최하는 등 현장위주의 일·가정양립 확산을 시도한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가족친화제도는 저출산 사회화의 속도를 늦추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유익한 제도임을 다함께 인식하는 계기가 돼 지속적인 일·가정양립 실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충희 기자

車부품업체 수출계약 220만 달러 성과



글로벌 車 메이커 포드 등 지역 자동차부품업체 방문 1400만 달러 수출상담 진행

대구시와 (재)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가 지난 17-19일,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인 포드(Ford)와 글로벌 1차 협력·부품사의 바이어를 초청해 우리지역 기업들과 수출 상담의 장을 가졌다.

이번 방문상담은 북미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해 지역기업 16개사를 방문했다.

총 39건, 1400만 달러의 수출상담을 진행해 계약 추진액 220만 달러의 성과를 이뤘다.

포드는 2개사를 방문해 트랜스미션 및 공조 시스템 부품 등에 대한 심층상담을 진행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6월말 미국 포드를 방문해 1차 상담을 진행하고 이번에는 바이어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라인을 확인한 것이다.

글로벌 부품사인 그루포 안톨린(Group Antolin)은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방문·상담하고, 익년도 신규개발제품에 대한 견적을 요청했다.

또한, 전기차를 생산하는 커뮤터 카즈(Commuter Cars)와 차량용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암펠(Ampel)은 각각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과 조명분야 부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상담과정에서 바이어의 관심도가 높고 수출성과 달성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대구시와 대구TP의 다양한 수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후속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안중근 대구시 일자리기획관은 “자동차 부품 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최근 국내외시장 환경 악화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이 절실한 우리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희 기자

달서구 “체납액 납부 자동이체해요”

CMS 출금서비스 도입

대구시 달서구의 체납액 납부가 보다 편리해진다.

달서구는 20일 “내년 1월부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과태료와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징수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달서구가 낸 아이디어다.

그간 주민은 지방세외수입 분납 시마다 은행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서비스 도입으로 주민은 정해진 날짜에 체납액을 자동 납부할 수 있다.

달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납부 편의 개발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남구청, 자연재난관리 ‘최우수’ 선정

배수펌프장 등 각종 시설물 정비 재난 대비·대응 태세 높은 평가



남구청이 '2018년도 구·군 자연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올해 1-12월까지 △재난관리 실태점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등 4개 항목으로 재난관리 추진실태를 평가했다.

남구는 민·관·군의 협조를 통해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분야별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또한, 배수펌프장, 하수도 등 각종 시설물 정비, 재난 대비·대응 태세를 확립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구·군 자연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 직원이 재난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재해·재난 취약 지역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충희 기자

권영진 “혁신은 불편한 것 아닌 행복해지는 것”

사랑의 온도탑 문제 기부와 나눔의 전통 가진 대구의 자존심

권영진 대구시장은 2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토론회에서 “혁신은 불편한 것이 아니다. 나 개인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이 혁신이다”며 조직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권 시장은 “우리는 특정한 시기, 대상, 영역에서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혁신이 피로감으로 반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혁신으로 조직내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곧 실시될 직제개편과 인사와 관련

해 “해체되거나 새롭게 설치되는 부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인 수인계에 철저히 기해 달라”며 “가능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직인사 계획을 잘 것”을 지시했다.

그는 “최대한 공정한 인사를 하겠지만 섭섭한 면이 있더라도 조직전체를 위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시장은 “사랑의 온도탑에 나눔의 손길이 예전보다 저조하다. 사랑의 온도탑 문제는 기부와 나눔의 전통을 가진 대구의 자존심”이라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저부터 솔선수범 하겠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자. 기부와 나눔의 대구정신이 멋진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동행하자”고 당부했다.

뉴시스



대구시설공단 2·28공원, 시민 산타엽서 발송

감동사연 14명 선정·시상

대구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2·28기념중앙공원은 2016년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엽서를 접수하는 산타우체통을 운영 중이며, 한 해 동안 시민들이 작성한 엽서를 크리스마스 전에 주인공에게 배송해주는 산타할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다. 올해도 총 2만 2000장의 소중한 엽서를 13일 발송했다.

또한, 대구시 문인협회와 공동으로 5월에는 ‘시(詩)엽서 공모전’을 진행해 대구시교육감 표창을 포함 14명을 선정·시상했으며, 이번

달에는 ‘산타엽서 감동 사연’ 이벤트를 개최해 잔잔한 감동이 묻어나는 사연 6건을 선정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연인들의 행복한 미래,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감정’ 등을 나타낸 감동사연을 선정해 18일에 2·28기념중앙공원 산타우체통 앞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구시설공단 김호경 이사장은 “산타우체통을 통해 한 해를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충희 기자

탈북민 시민안전테마파크 방문 사회 적응 위한 문화 행사 일환

대구소방안전본부 시민안전테마파크가 지난 19일, 김해지역 탈북민들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방문해 안전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탈북민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민주평통 김해시협의회에서 기획해 마련했다.

이들은 2.18 대구지하철 참사의 교훈과 안전을 상징하는 안전상징조형물에서 대구 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한 후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대표적 체험인 지하철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과 위기대응체험을 실시했다.

김충희 기자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대구 수돗물!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고도정수처리한 대구 수돗물!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물입니다. 수돗물을 맛있게 먹으려면?

- 수온이 5~10℃경도의 찬물이 가장 맛이 좋다
-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은 후 염소 냄새를 없애기 위해 30분 정도 두었다가 방전고에 보관한 후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후손에게 물려 줄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화장실, 주방, 세탁실, 욕실 생활속 물 아껴 쓰기를 생활화 합시다

Waterworks Headquarters Daegu Metropolitan City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북도 인사

◇2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3급 승진
△정책기획관 정성현△대구경북한부
리상생위원회 사무국장 파견 신현욱 △
교육훈련 이경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전보
△재난안전실장 최웅△환경동해지역본부
장 김남일△밀지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농축산유통국장
김중수 △환경산업자원국장 박기원△북
지권강국장 김재광△건설도시국장 최대
진△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감사관 이
창재△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여성가
족정책관 조광래△교육정책관 배성길△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전준근
◇부단체장
△포항부시장 송경태 △경주부시장 이
영석 △김천부시장 이강찬 △안동부시
장 김세환 △구미부시장 김상철 △영주
부시장 양정배 △상주부시장 조성희 △
경산부시장 이장식 △칠곡부군수 강성
의 △문경부시장 허정열 △군위부군수
김기덕 △의성부군수 임주승 △영양부
군수 유우호 △영덕부군수 정규식 △울
진부군수 권대인
◇4급 승진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김홍석 △
신도시조성과 박종근 △예산담당관실
서정찬 △문화예술과 서태원 △경도대
사무국장 직대 송호준 △사회복지과 심
주석 △사회복지과 이근식 △대구경북
상생본부장 직대 이종천 △대변인실 최
현환 △미래전략기획단 홍성표 △인사
과 홍성규 △동해안정책과 김승욱 △감
사관실 김창순 △장애인복지과 최우진
△환경정책과 이희석 △해양수산과 김
진규 △항만물류과 박성환 △보건의정
과장 직대 김영길 △축산정책과 김규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백하주
(2019년 1월 1일자)

이철우,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20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지사와 2019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식을 가졌다.
적십자회비는 경북도내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희망풍차사업, 재난구호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지역에는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저희는 적십자사와 함께 이런 사각 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며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는 만큼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 적십자회비 납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영구 기자

‘외식업선도지구경진대회’ 전국최고상 휩쓸어

경북 외식업 지구 최고상 영예
팔공산송림가산산성지구 ‘대상’
설머리물회 우수외식업 지구 ‘우수상’

경북도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2018년 전국 우수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에서 칠곡군 팔공산송림가산산성 지구가 '서비스 부문 대상'(1등), 포항시 설머리 물회 우수 외식업 지구가 '우수 식재료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는 전국 지역별 자체적으로 조성된 음식점 중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곳을 선도 지구로 발굴해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경제 주요거점으로서의 성장 견인 및 외식업 활성화, 외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실시하는 경진대회다.
경진대회는 우수 식재료 부문과 서비스 개선 부문 2개 분야로 나눠 평가를 실시했으며 자치단체별 예선을 통과한 외식업 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본선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칠곡군 '팔공산송림가산산성 지구'는 현지실사 결과 평가항목인 종사자들의 친절도, 농업과의 연계강화 노력, 우수 식재료 이용 현

황, 외식업 지구 조리시설 및 위생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
팔공산 터널 개통에 따른 관광객 급증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이 줄어들어 어려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간판 정비사업, 친절교육, 외식업 아카데미, 홍보 및 시식 행사 등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상 영예를 차지했다.
우수 식재료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포항시 '설머리 물회 우수 외식업 지구'는 2016년 최우수, 2017년 대상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대상을 수상한 '팔공산송림가산산성 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15백만원, 우수상을 받은 '설머리 물회 우수 외식업 지구'는 장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10백만원을 받는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외식업 선도지구 육성은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농업과의 연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외식업 경영 안정을 위한 보다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구 기자



팔공산송림가산산성지구 셰프들의 요리법 공유 장면(사진=경북도 제공)

의성군, 지역개발사업 '최우수'

우수기관에 '영주시·청도군'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 기대

경북도는 20일 민간 자본 투자유치 실적, 기반시설사업 추진 등 지역개발사업 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에 의성군, 우수기관에 영주시·청도군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기관상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에 유공이 많은 관련 공무원(7명)과 민간인(2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의성군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전세사업 대비 추진율, 국·도비 집행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주시는 민간자본 투자 및 유치노력,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영주 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이 선정돼 구(동)도서관을 활용, 주민·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협력을 통한 민간 거버넌스를 발굴해 시민참여를 극대화한 공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청도군은 전체사업 추진율, 시·군비 투자실적 등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특히 개발촉진지구 완료사업인 '비슬산 자연휴양림 및 오례산성 진입로'에 자체 군비를 투입해 경관 가로등 및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등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준공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박재성 기자

경북도, 민박 등 농촌관광 시설 안전점검

동절기 화재·안전 위험요인 사전제거, 안전관리 강화

경북도는 동절기를 맞아 내년 2월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민박 등 농촌관광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개소, 관광농원 58개소, 농어촌민박 2544개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6개소 등이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가스 및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식재료 및 조리실 위생관리 등을 확인하고 점검결과와 소방화재 안전, 위생 등 관리 부적합 시설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대형 숙박업소 운영,

농촌지역에 실거주하지 않는 도시민의 농어촌 민박 운영, 불법건축물 및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기관과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장 현장교육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 12월초 이틀간 안동시·의성군의 농촌관광시설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최근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도 자체 점검반을 4개반 8명으로 확대·편성해 점검하고, 23개 시군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 점검한다.
임주승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동절기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누구나 안심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구 기자



경북도 '내년 무상보육 원년' 선포...영아반 운영비도 지원

보육분야 6026억원 투입

경북도가 내년을 전면 무상보육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파격적인 보육정책을 펼친다.
경북도는 20일 내년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부모 부담료 전액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고 행복한 젊은 경북' 만들기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 141억원과 영

아반 운영비 70억원 등 보육분야에 6026억원을 투입한다.
부모 부담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어린이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부모 부담료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한다. 올해 기준으로 만 3세 어린이는 월 6만 4000원, 만4~5세 아동은 4만9000원이다.
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비를 월 10만원 지원키로 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올해 1197명이던 보조·대체교사 채용 지원 규모를 1640명(37% 증가)까지 확대해 일자리 확충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73억원을 추가 확보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특수사업으로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보육아동 인성교육, 장난감도서관 운영 확대, 스마트 강사 양성 등 보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구 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고령 대가야 금동판(제32호)

가야의 숨결이 깃든

경북의 가야문화

<p>상주 고령가야</p> <p>전대성(가야) 1999년 12월 18일 국가사적 제32호 지정</p>	<p>성주 성안가야</p> <p>성안고분군(사적 제38호) 1993년 1월 21일 사적 제38호 지정 성안고분군(사적 제38호) 1993년 1월 21일 사적 제38호 지정 한여울 1997년 12월 18일 국가사적 제32호 지정</p>	<p>고령 대가야</p> <p>대가야 유적(사적 제32호) 1999년 12월 18일 국가사적 제32호 지정</p>
--	--	---

경북의 가야문화!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경북도의회 내년부터 교섭단체 운영

내년부터 6명 이상 의원 가진 정당 교섭단체 구성 운영할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가 내년부터 6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의회는 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개원이후 처음으로 경북도

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내년부터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등 다당제에 따라 교섭단체를 운영한다.

경북도의회는 사실상 다당제에 출범에 따른 집행부 견제 및 건전한 정책결정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6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또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방향 및 정당 정책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조정,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상임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했다.

또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장경식 경북도의장은 “앞으로 교섭단체를 통해 의원 간의 소통과 협치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원활한 정책결정으로 도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현재 60개 의석 중 자유한국당이 42석, 더불어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8석이다. 김용구 기자

임미애 “출연기관 일반직 동일 직급·급여체계 마련해야”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



환경연수원은 경력 9년에 6급으로 7000만원, 경북도청 소년수련원은 경력 15년8개월도 6급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의회 임미애(의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의 일반직(사무직군)의 동일한 직급과 급여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가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해당분야의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특화해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관별 업무의 특성과 수행하는 사업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전문성과 양질의 전문 인재를 채용을 위한 전문직에 대한 직급과 급여체계의 차별화는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하지만 나머지 일반직(사무직군)은 전문직들이 수행하는 사업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기능 그리고 기관별 인사와 인사 운영 등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차이가 없음에도 직급과 급여체계가 제각각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진흥원 4급은 8년1개월의 경력에 7500만원, 경북TP의 4급은 2년10개월의 경력에 5300만원, 신용보증재단은 같은 4급의 12년3개월에 6600만원, 경북도

“직급체계도 7급 또는 9급, 10급부터 시작하는 등 제각각이고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도 부장, 책임급, 선임급, 원급으로 구분했다”며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나·다·라·마급으로 직급체계가 운영되는 등 일반직(사무직군)의 직급과 급여체계가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종사자가 1971명에 이르고 1조2542억원이 매년 집행되고 있음에도 일반 사무와 행정을 수행하는 일반직의 직급과 급여체계가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 출자출연기관 및 직속기관 일반직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정해 직급과 급여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출연기관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이 가능한 권역을 묶어 행정직들의 파견 근무(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출연기관의 행정력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재성 기자

교육위 ‘유치원3법’ 또 파행...패스트트랙 임박

한국당, 교육부 입법예고 문제 삼아 파행 선언 후 오후 퇴장 민주당 “파행 사유 치고는 공색 유치원3법 처리 의지 없어”

여야가 20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 자유한국당 자체안,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양당 절충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결렬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교육비 회계관리, 교비유용 관련 처벌조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립유치

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후 들어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회의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해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과 정원감축을 제재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으로, 교육부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폐회하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행령에 담은 내용이 법안소위 논의의 쟁점과 전부 연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게 됐다”며 “정부 스태프가 이해가 안 간다. 다 법으로 올라가면 좋은 것인가. 시행령으로 다룰 게 있고 법으로 다룰 게 있는데 형사처벌만 답이라는 것은 무슨 태도냐”고 교육부에 항

의했다.

교육부는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문제 삼아 일반적으로 퇴장하면서 오후 회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파행으로 끝났다.

조승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에듀파인 도입 등 시행령 개정조치를 이유로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다”며 “납득하기 어렵고, 파행 사유 치고는 공색하기도 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조 위원장은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국감에서 지적한 이후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에듀파인 도입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법안소위를 파행으로 이끄는 건 유치원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뉴스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박용진 의원이 참석해 앉아 있다.

여야, 택시업계 집회서 “사회적 대타협” vs “카풀 정책 중단”

택시업계가 20일 국회 인근에서 ‘카카오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여야가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택시업계 지원을 약속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카풀 금지를 외친 야당을 향해 환호를 보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Task Force·대책본부) 위원장은 “택시 4단체장이 어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지혜를 같이 모으기로 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택시산업 생존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힘을 모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택시업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오늘도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잘 새겨 택시산업 발전과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현장에서는 “사라져”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집회 사회자는 “전 위원장이 무슨 죄냐. 그렇게 이끌고 있는 정부여당이 문제다”며 “전 위원장은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뛰고 있다. 분노를 전 위원장에게 표현하지 말고 정부여당에게 표현하라”고 했다.

택시 업계가 20일 국회 인근에서 ‘카카오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여야가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택시업계 지원을 약속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카풀 금지를 외친 야당을 향해 환호를 보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Task Force·대책본부) 위원장은 “택시 4단체장이 어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지혜를 같이 모으기로 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택시산업 생존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힘을 모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택시업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오늘도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잘 새겨 택시산업 발전과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현장에서는 “사라져”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집회 사회자는 “전 위원장이 무슨 죄냐. 그렇게 이끌고 있는 정부여당이 문제다”며 “전 위원장은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뛰고 있다. 분노를 전 위원장에게 표현하지 말고 정부여당에게 표현하라”고 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카풀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 폐지를 약속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문진국 의원안(카풀 시간대 구제화)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생존권 투쟁을 지지하고 정부에 대해서 대책 없는 카풀 전면 도입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며 “대기업도 살아야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택시도 살아야한다. 함께 전진하자”고 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불법 카풀을 카카오가 대놓고 하겠다는데 현 정부가 카카오 대표를 구속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며 “검경은 즉시 카카오 카풀 운영진을 오늘이라도 구속시켜라”고 했다. 그는 “카카오가 들어오고 대리운전회사가 다 망했다”며 당정의 ‘공유경제 육성’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다. 뉴스시

전문성 있는 언론인 연수

언론 조사, 분석,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뉴스서비스

뉴스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과학적인 정부광고 집행

전국인 대상의 미디어 교육

임기문화 강연회

소외계층 매체 취재, 제작 지원

소외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국민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언론과 국민을 잇는 이음줄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뉴스생태계 혁신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시민단체 “미래 전략자산 대구공항 존치해야”

시대본, 시민 세미나 열어

대구시가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민간공항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반대 시민단체인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킴이 운동본부(이하 시대본)는 20일 대구YMCA 본관에서 ‘대구공항과 대구의 미래경쟁력’을 주제로 시민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두만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지방 대도시 중 국내 유일 국제공항인 대구공항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 인프라(기반시설)며 전략자산이므로 이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명예교수는 “대구공항은 항공 운송량이 증가하는 국내 유일의 공항이며 근거리 국제선 전용공항으로 활용할 경우 지역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면서 “대구공항은 관광산업 활성화, 국제관광객 유치에 뛰어나 대구의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자산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항공기 제작·운항·수리를 포괄하는 항공산업 그룹 유치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명예교수는 “미래 항공기는 소음을 크게 줄여주는 추세며 개인 항공기의 보급확대로 대구공항은 머지않아 스마트 공항으로

새롭게 변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대구공항을 민항 전용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공군이 제1전투비행단을 이전시키고 군용기 수리장을 충남 해미의 82전대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미나에는 김사열 전 경북대 총장 당선인을 비롯해 임대운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시대본은 앞서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질의한 결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이전부지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일 뿐 활주로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가 그동안 주장해온 통합 이전 공항의 활주로 길이(3500m)는 일방적인 주장 내지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시대본은 “국방부는 활주로 2713m 건설을 기준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비를 9조~1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주장하는 3500m 활주로를 조성하려면 추가 사업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대구공항이 지역 미래산업의 필수 인프라인데도 대구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대구공항 존치의 당위성을 부각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여은 기자



택시업계 총파업으로 택시 운행이 중단된 20일 오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앞 광장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택시 동맹휴업...시민들 ‘발 동동’

대구 택시 1만6017대 동맹휴업 참여

‘카카오T 카풀’ 시행에 반대한 대구 택시업계의 총파업 동맹휴업 참여율이 높아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법인·개인택시 1만6017대가 동맹휴업에 동참했다.

파업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당초 동맹휴업에 반대한 택시기사 역시 조합 차원의 휴업 독려가 이어지자 결국 파업에 참여했다.

실제로 평소 택시가 50m가량 줄지어 서 있던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앞 택시 승강장은 이날 텅 빈 모습을 보였다.

여행용 캐리어를 든 관광객들은 택시 대신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대구시 관계자의 안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여행 차 대구를 찾은 임재현(52·인천시 동구 화평동)씨는 “택시로 10분이면 이동할 거리를 온 가족이 버스를 타고 30분가량 둘러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근시간대 시내 주요 도로 곳곳을 달리던 택시도 모두 자취를 감췄다. 30여분 이상 기다려야 겨우 택시 한 대를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자 일부 출근길 시민들은 발을 굴렀다.

대구시 중구 문화동에서 만난 직장인 정덕임(32·여)씨는 “택시가 파업하는 줄 몰라 아침에 여유를 부리다 결국 회사에 지각할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대구의 호출택시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파업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택시회사 관계자는 “오늘 파업으로 전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면서 “답답함을 느낀 시민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택시 파업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예상되자 대구시는 대중교통을 증편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8개 노선(급행1~급행8)에 모두 85대의 버스를 추가로 투입해 연장 운행한다.

승용차 요일제도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두드림’ 상담을 통해 비상상황 대비 교통상황실도 운영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파업 당일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여은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첫 공판 열려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선고 공판 내년 1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사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권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헌직 시장으로서 법정에서 세계 시민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며 “시장직을 상실하는 행이 나온다면 시민들에게 더 큰 죄를 지을까 걱정이다.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헌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권 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실사 그런 취지로 말했다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검찰 측 증인 4명의 진술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어서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원심이 사실인고 법리 오해를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권 시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두 차례나 위반했고, 4월 22일 사건으로 고교 후배인 서호영 대구시의원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두 차례 범행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이 사후에 정당화돼선 안 되며 피고인은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열린다.

뉴스

최수일 전 울릉군수,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80만원)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군수는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소액의 금품을 줬고,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7차례 출마한 정도로 선거경험이 많은 데도 헌직 군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원환 기자

멈춰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사고 원인 ‘부실시공’

지난달 3호선 멈춤 사고 원인 안전위, 앵커볼트 용접 불량 콘크리트빔 균열·파손 지목

지난달 멈춰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고장 원인은 ‘부실시공’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호선 멈춤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꾸려진 외부전문가 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는 20일 “3호선 베이스플레이트의 하부 공극과 콘크리트빔 균열, 앵커볼트 용접 불량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위가 지난달 12일 대구시 북구 칠곡 차량기지에서 핑거플레이트 고정에 사용한 앵커 볼트, 베이스 플레이트 등의 시편 36개를 채취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다.

안전위는 앵커볼트 용접부가 부러졌거나 콘크리트빔 파손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안전위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앵

커볼트 6개 중 4개는 KS(한국 공업 규격) 표시품이지만 나머지 2개는 KS 미표시품으로 밝혀졌다.

앵커볼트 용접상태 불량도 확인했다. 용접 두께가 8mm이상 돼야 하지만 일부 구간의 용접 두께는 3~4mm로 드러났다.

지난 10월2일 오후 4시19분께 대구시 북구 3호선 팔달역 승강장에서 궤도빔 핑거플레이트 탈락으로 전원공급이 끊겨 양방향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지상 11m 높이에서 열차가 갑자기 멈춰서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안전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구도시철도 공사는 3호선 시설보완에 착수한다.

3호선 핑거플레이트 형태의 신축이음부 1482개소를 총격완화형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전면 교체한다. 탈락 방지판과 앵글도 추가로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한다.

안전 점검인력도 기존 14명에서 19명으로 늘린다. 현재는 전 직원이 칠곡기지에서 근무



하지만 범몰주재소를 신설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팔달교 구간 공사인 현대건설은 올해 중 피해 복구비와 영업 손실비 등 1억8000만원을 보상한다. 신축이음장치 교체비인 37억원도 8개의 시공사가 나눠 부담한다. 다만 자체비인 43억원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부담한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모노레일을 운영하다 보니 경험이 부족했다”면서 “TF팀을 구성해 품질과 안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충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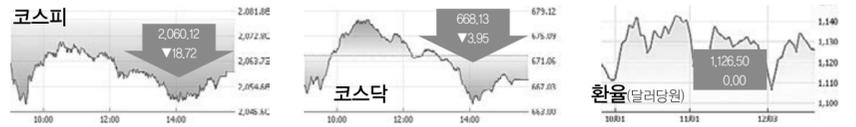
진짜친구라면...

친구의 흡연·음주 권하지도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고, 유익한 정보는 함께 공유하며, 함께 웃고 힘겨울때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 하지만 진짜 친구는 무심코 권하는 한잔의 술과 담배의 위험함을 알고 순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보세요.

잠깐! 부모님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 아이의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여성가족부 |



20일 한수원 본사 로비에서 열린 '따끈따끈 바자회'에 참가한 어린이가 물품을 기부하고있다.

한수원, '따끈따끈 바자회' 옷장 비우고 사랑 채우고~

임직원 물품 기부, 장애인 손길 거쳐 전국 5개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재판매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기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일 본사 로비에서 임직원 물품 기부 행사인 '따끈따끈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수원 임직원들은 의류, 잡화, 가전제

품 등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품을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굿윌스토어'에 기부했다. 기부한 물품들은 장애인들의 손길을 거쳐 전국 5개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판매된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로 사용돼 장애인 고용창출과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한수원 직장이민이집인 '도담어린이집' 원아 50명도 직접 돈 목도리를 기부하며

나눔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굿윌스토어'의 물품 1000여점을 현장에서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윤상조 한수원 지역상생협력처장은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눠 장애인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바자회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천 기자

대구은행, 노란우산공제 제도 확산 감사패

노란우산공제 가입실적 지방은행 중 가장 우수

DGB대구은행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으로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 확산에 따른 노력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이광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 회장은 이날 오후 DGB대구은행 수성동 본점에서 서정동 여신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와 폐업증가 등 소기업·소상공인

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전국 13개 금융기관 중 최초로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가입 이후 현재까지 업무협약 체결 지방은행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실적이 가장 우수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확산을 통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가는 동반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경수 기자

대구백화점, 소아암 환우 돕기 후원금 전달

'어린이 소아암 환자 돕기' 캠페인 500만원 백혈병 환우 부모에 전달

대구백화점은 대구시 중구청을 방문해 '어린이 소아암 환자 돕기' 후원 캠페인을 통해 적립된 500만원을 백혈병을 앓고 있는 16세 환우와 부모에게 전달했다.

이번 소아암 어린이 돕기 후원금 전달로 대

구백화점은 2017년 중구를 시작으로 북구 등 지역의 8개 구청과 군청을 통해 총 누적액 4500만원을 전달했으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지역의 어린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대구백화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경수 기자

롯데백화점 대구점, 남성 캐주얼 브랜드 인기

젊은층 선호 제품 대거 출시 연령대 다양, 시즌오프 등 다양한 할인행사 선보여

남성의류 시장에서 캐주얼 브랜드가 대세 상품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형화된 정장 스타일 대신 비즈니스 캐주얼트렌드가 확산되고, 직장 외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해 정장을 대신하는 복장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대구점 6층 남성 캐주얼 브랜드 매출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10월11일~12월16일)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늘었다. 이는 같은 층에 입점된 정장상품신장율보다 15% 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출도 지난해보다 11% 늘었다.

특히 '가르프블랑슈'와 '헨리코튼'은 같은 기간 동안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30%, 27% 이상 늘었다.

대구점 '가르프블랑슈' 이종훈 샵매니저는 "예전에는 회색, 블랙 등 단색제품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체크패턴과 화려한색상이 대거 출시되면서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매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2년간 대구점 남성캐주얼 구매연령대를 살펴보면 지난해 40~50대 이상 비중이 약 75%, 30대가 10%인 반면 올해 현재까지는 40~50대가 45%, 30대가 25%로 30대 고객



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캐주얼 브랜드의 인기는 비즈니스 룩 확산 영향과 다른 남성 상품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가성비는 뒤지지 않고, 최근 젊은층이 선호하는 롱 패딩 제품 등 제품이 다양해져 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롯데백화점대구점 정태호 남성팀장은 "가성비와 실용성이 좋은 제품을 찾는 남성 고객이 늘면서 남성 캐주얼 상품구매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있다"라며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앞으로 남성 캐주얼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헨리코튼, 울렌, 가르프블랑슈 등 남성 캐주얼 브랜드들은 시즌오프와 품목할인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울렌'과 '가르프블랑슈', '프랑코페라로'는 30%, '헨리코튼'은 20% 시즌오프를 진행하고, 브랜드별 점퍼 등 아우터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최경수 기자

대경권 '빅데이터센터' 4곳 손잡다

과기정통부 지정 대경권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데이터 기반 지역현안 해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20일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대경권에 소재한 빅데이터 전문센터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과기정통부의 빅데이터 전문센터로 지정된 대경권 4개 기관(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빅데이터센터(대구시 빅데이터센터), 영남대학교 경북빅데이터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빅데이터센터, 대구경북연구원 공간빅데이터센터)이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대경권 빅데이터 국책사업 공동발굴 △빅데이터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기술자문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기관 보유 데이터 공유 및 공동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데이터, 전문인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에도 공동 참여해, 향후 대경권 빅데이터 발전에 선도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2018년 5월 행정안전부의 빅데이터 허브 시

범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과기정통부의 빅데이터 전문센터로 지정됐으며 지역 빅데이터 실태분석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더불어 빅데이터 기업 및 인재 육성 방안을 수립하는 등 지역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이득성 단장은 "대경권 빅데이터 산업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간 공동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내년부터 대구광역시의 빅데이터 활용센터가 수상알파시티에 개소되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희 기자

LH, 장애인 이동권 개선 '나눔 리프트카' 운영

오늘 대구남산복지재단에 전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21일 중구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구남산복지재단과 '나눔 리프트카'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LH와 대구남산복지재단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편리한 이동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 7월 '리프트카'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눔 리프트카'는 장애인용 카운터 18인승 버스로서, LH 후원금등 총 1억 2천만원의 차

량제작 비용이 소요됐으며 버스 뒷면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손쉽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차량이다.

LH 한병홍 본부장은 "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후원하는 버스가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대구·경북을 왕래할 수 있는 튼튼한 다리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보다 많은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수 기자

수성의료지구

“기업의 힘이 도시의 성장을 이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 미래형 스마트시티

스마트폴리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민통

★★★ 4차 산업혁명 시대 비즈니스 플랫폼 ★★★

지용주행, 무인관제, 지능형 안전, 뇌기술 등이 적용된 스마트 산업단지 입지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역동적인 대구경북의 미래

(신규최종)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제휴형 의료관광 플랫폼

SW 및 IT 융합클러스터 북캠퍼스

기업의 힘이 도시의 성장을 이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DGFEZ** Promise for Success

포항의 밤을 밝혀줄 '형산강 워터폴리' 준공

해양경찰서 형산강출장소 옆 위치 음악에 맞춰 포스코 조형 바뀌는 다이나믹한 야경쇼 즐길 수 있다

포항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형산강 워터폴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영일대와 송도 워터폴리에 이어 20일 준공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당당한 위용을 뽐낸 형산강 워터폴리는 포항해양경찰서 형산강출장소 옆에 자리해 있다.

유리구 높이 14m인 전구 모양으로 동해의 일출을 모티브로 해 해오름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유리로 만들어져 형산강 워터폴리 안에서 풍경을 볼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음악에 맞춰 포스코 조형이 바뀌는 다이나믹한 야경쇼도 즐길 수 있다. 저녁 7시~9시까지 매시 정각부터 20분간 펼쳐지는 야경쇼는 특별한 볼거리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것이다.

강동진 기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박영호 사장 내정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19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박영호(58) 부로분부장을 사장 내정자로 최종 선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장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7명)와 면접(5명)으로 신임 사장 후보(2명)로 선정했으며 19일 오전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했다.

박영호 사장 내정자는 서울 환일고와 영남대, 경북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이후, EC 대구를 시작으로 예스코, 대구컨벤션뷰로 사무국장(11년)을 역임하는 등 MICE 산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현재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부로분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박영호 사장 내정자의 임기는 2019년 1월 23일부터 2년간이다.

윤용찬 기자

울릉군, 2018년 누리집 대민 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울릉군 누리집, 웹접근성 호환성 모두 만점 획득

울릉군 누리집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한 '2018년 웹접근성·호환성 및 관리수준 진단에서 웹접근성(50%) 웹호환성(50%)의 두 가지 평가 항목 모두 만점을 획득해 이를 준용한 경북도 시·군 누리집 정보접근 수준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게 됐다.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터넷 공간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웹호환성은 국제 웹 표준 준수와 업체 종속적 기술(ActiveX 등)을 탈피해 다양한 웹브라우저 호환기술 도입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함을 의미한다.

울릉군은 2011년부터 대국민 웹사이트의 정보접근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한편, 2016년에는 모바일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울릉군 내 무료 WIFI존 및 CCTV설치 위치를 제공하고 기존PC 버전에서만 제공되던 실시간 웹 방송을 모바일 환경에서도 구동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해 편의성을 높인 바 있다.

경북도에서 매년 시행하는 시·군 누리집 정보접근 수준 평가는 인터넷 대민서비스 창구인 누리집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이용활성화는 물론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발적 참여로 누리집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영환 기자

영덕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영덕사랑상품권 지급

성실납세자 100명 전산 추첨 성실납세 사회분위기 조성 기여

영덕군은 지난 19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추첨했으며 3만원 상당의 영덕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이번 추첨 행사를 마련했다.

전국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추첨했고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에서

채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3026명이 대상이었다.

당첨된 100명에게는 '영덕사랑상품권 3만원'과 감사 서한문을 등기우편으로 지급하며 당첨자는 영덕군청 누리집(http://www.y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영덕사랑상품권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포항시 공고 제2018-1561호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59-1번지 일원의 「대잠동 대지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1일 포항시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대잠동 대지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대잠동 산59-1번지 일원
- 면 적 : 26,226㎡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조서 및 관련도면 : 게재생략

2. 열람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8년 12월 22일 ~ 2019년 1월 10일
- 열람장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람기간 내
- 제출방법 : 서면 제출

4. 기 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 054-270-3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회 Univer+City포럼

포항시, 울산시, 경주시는 20일 포스코국제관에서 포항, 울산, 경주 지역의 도시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4회 Univer+City포럼'을 개최했다.

어촌뉴딜300사업 선정된 울진군 석호항

사업비 96억원 확보 해양레저형 개발 유형으로 2020년까지 진행

울진군 석호항이 2019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96억원(국비 68억, 지방비 28억)을 확보했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국비를 투입, 낙후된 소규모 어촌의 항·포구의 핵심자원을 활용해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등 4가지 개발유형으로 분류해 통합개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해양수산부의 공모를 통해 전국 150곳이 신청했으며 서면평가·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 18일 최종 70개소의 항·포구를 선정했다.

이번 대상지로 선정된 울진군 석호항은 해양레저형 개발유형으로 2020년까지 해안레저 산책로, 수중어초 군락지, 소규모 계류장, 노후 물양장 정비 및 개선 등 어촌기반시설을 마련과 암반 및 잔교낙시, 보트낙시 등의 해양레저행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어촌해양관광의 거점을 목표로 휴먼간편식, 바리스타육성교육, 보트낙시 전문교육 등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삼색낙시와 명품바다

의 바람이 출렁이는 석호항"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철길 군수는 "석호항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어촌체험과 해양레저관광의 산재된 잠재요소를 엮어 시너지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울진군이 어촌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성주군, 인구감소 극복 머리맞댄다

성주군, 인구감소 민·관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성주군은 19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기업체 등 22개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군 인구증가를 위한 민·관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사망이 출생의 두 배(출생:사망=1:2.2)가 넘는 자연감소와 취업, 정주여건 등으로 인해 대구 등 도시지역으로의 전출이 발생해 올해 11월 말 기준 인구가 4만4452명으로 작년말 대비 686명이 감소한 상황이던 성주군도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은 군 주도의 인구정책 한계에서 벗어나, 민·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구절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성주군 내직장, 내고장 주소 찾기 운동 동참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군민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등에 관해 상

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병환 성주군수 주재로 인구증가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인구는 성주군의 미래이자 희망이다"라며 "인구증가를 위해 군은 유망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 주거단지 조성을 비롯해 각종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을 확대해 인구증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 협력해 군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관 공동대응 협약단체 명단=성주군의회, 성주경찰서, 성주교육지원청, 성주소방서, 성주우체국, 농협성주군지부, 대구은행성주지점,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회, (사)성주군중소기업협의회, (사)성주여성기업인협의회, 성주신문사, 성주자치신문사, 경서신문사, 성주군이장상조회, 성주군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성주·용소방대연합회, (사)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성주군지부, 아이코리아성주군지회, (사)경상북도청년연합회성주군청우회, 성주군청년회의소 등 22개 기관·단체

박노균 기자



경주시, 2018 건축행정분야 최우수상 수상

신속한 건축 인허가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 적극적 건축행정 호평

경주시는 20일 부문 황동원에서 열린 '2018년도 경상북도 건축행정 워크숍'에서 건축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 21일 이틀간 열린 건축행정 워크숍은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전문성, 노력도 등 건축행정분야 전반에 대해 올 한해 동안 추진한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자리이다.

경주시는 공정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민원 및 주거급여 처리,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공동주택 관리 운영 투명화 등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10월 하이코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2018 한옥문화박람회'를 주최해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 관련 산업의 육성과 전통 자산의 계승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한편 경주시는 '2019 한옥문화박람회'와 '2019 경북도 건축문화제'를 비롯해 이와 연계한 '전국 한옥 공모전 시상식', '전국 지자체 한옥 담당 공무원 워크숍'도 유치하기로 결정돼 한옥의 대중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의 선진화 추진과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



문경시 올 한해 공모사업 44개 선정

평가관 호평 117억여원 확보 수상 48건 상사업비 2억여원

문경시가 올해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한해를 마감하고 있다. 민선 6기 추진 사업과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실천한 현안 사업의 연말 마무리 단계에 중앙부처 및 외부기관이 시행한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큰 성과를 얻어 풍성한 연말을 맞게 됐다.

우선 중앙부처, 경북도, 민간단체 등 48개 분야에서 상사업비 2억1000만원을 받았고 공모 사업에서도 44개 사업이 선정돼 117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각종 평가 수상내역을 살펴보면 민선7기 출범 시 강조했던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행정 혁신분야에서 앞장 걸음을 뒀었다.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A 등급, 지방자치 공약대상, 민선 7기 매니페스트

토 약속대상 등을 수상해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았다.

혁신분야에서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최우수, 지방재정 개혁 관련 3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수상하는 등 문경시에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켰다.

아울러 올해는 인구 증가 및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 꾸준히 힘써온 결과 저출생 극복 우수시책 장려, 2018 시군 저출생 극복 시책 평가 우수 등도 수상했다.

2014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 1위, 2015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던 '문경새재'가 3년 연속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을 수상했다.

또 2018 지역복지사업평가(사회복지급여 점검관리) 부문 우수, 2018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최우수, 2018 생태하천 콘테스트 우수사례 장려, 2018 농촌개발 분야 평가 최우수, 2018 추계도량보 및 지방도 업무 우수기관 최우수, 새마을운동 시·군종합평가 2년

연속 대상, 2018 건축·주택업무 평가 최우수상, 2018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올해에는 행정, 문화·관광, 복지, 농·축산업, 건축, 안전·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공모분야에서는 총 44개 사업이 선정됐고 117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요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2018년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140억50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5억7000만원 △특성화 첫 걸음 시장 육성사업 1억9500만원 △과실전문 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16억7800만원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8억원 등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각종 수상과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8만 시민과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지난 3월 30일 고윤환 문경시장이 지방자치행정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수상 후 기념 촬영 모습이다.

구미시, '홈케어가전' 산업육성 발 벗고 나서

ICT 기반 생활환경지능형 스마트가전 기반조성 추진 전자산업 협력 회복 기대

구미시가 전자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홈케어가전' 산업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구미시는 지난 18일,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업무보고와 함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생활환경지능형 스마트가전 혁신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동안 구미시는 11월 포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경북지역 경제인 간담회'와 지난 5일 국무총리 주재 '구미 경제인 간담회'에서도 포스트 전자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구미시장이 직접 홈케어가전 사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원의 건의하는 등 지역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홈케어가전은 1인·맞벌이 가구,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영유아 돌봄, 가사지원 및 실버 세대의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실버', '뷰티', '펫(pet)', '베이비', '리빙'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규모가 매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구미시는 산업부와 함께 2020년까지 금오 테크노밸리 내에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해 설계에서 제작, 실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완제품의 시장성 확보를 위해 디자인, 로고상표 출원,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30개 업체를 중심으로 기업협의체를 구성해 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활성화 한다는 전략이다.

장세용 시장은 "백색가전 중심이었던 구미 전자산업이 ICT 기반의 홈케어가전 육성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홈케어가전 혁신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제품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자산업도시로서 제2의 구미 르네상스를 이루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은진 기자

황천모 상주시장, 국회 방문 현안사업 지원 요청

지역 현안사업 필요성 설명 특별한 관심과 협조 구해

황천모 상주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황 시장은 이날 김재원 지역구 국회의원을



이태호 기자

비롯해 임이자, 손혜원, 이주영, 서영교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방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특히 상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육군사관학교 이전, 수도권 대학병원 유치,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보존 방안, 청소년 해양교 육원 건립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했다.

또한 문경-상주-김천 구간 고속전철화 사업의 조기 착공과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상주-보은 간 도로 확보장 등 SOC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부탁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우리 시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예산 확보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경산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9개 분야 58명 표창 수여 자인면새마을회 대상 수상

경산시새마을회는 지난 19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경산시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는 한 해 동안 새마을운동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년 연말에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 읍·면·동 입장식, 의식행사로, 2018 성과보고, 유공자 시상, 인사발령 등으로 진행됐으며 시상식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9개 분야 총 58명에게 표창이 수여했으며 읍·면·동 새마을종합평가에서는 자인면새마을회가 대상을 차지했고 3R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 부문에서는 새마을지도자자인면협의회가 1위를 했으며 사업일지 부문에서는 진량읍 새마을부녀회가 1위를 차지했다.

박준범 기자

김천시, 건설사업 조기발주 합동설계단 발대식 가져

김천시는 19일, 2층 회의실에서 내년에 시행할 각종 건설사업의 조기발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 건설사업 조기발주 합동설계단' 발대식을 가졌다.

합동설계단은 건설안전국장을 단장으로 내년도 지방재정집행 조기달성 위해 시 산하 토목직 공무원 76명을 5개반으로 편성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도로·하천·상하수도·도시및농촌개발 등 2781억원 규모로 2018년도 전체 예산대비 28%를 차지한다.

내년도 건설사업 총건수는 1314건으로 읍·면·동 주민지원사업 등 자체설계는 총 908건으로 전체 건수대비 69%정도로 토목분야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확인하고 주민의견을 들어 축량 및 설계를 하고, 대형 및 특경사업 406건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실시하게 된다.

올해 합동설계단 발대식 내용은 선임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절차, 단계별 시공요령, 주의사항 등을 교육함으로써 설계의 내실화 및 효율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천시는 "내년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로 국가예산 중 SOC사업 성과를 도출하고 일자리 넓히는 건설복지 실현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지역개발이 지속되도록 공무원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도시건설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진 기자

영천시, 민원행정·저출생 극복 시책 인정받다

원스톱민원창구 운영 '국무총리 표창' 수상 경북도 저출생 극복 시책 평가 '대상' 수상



영천시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민원행정발전(원스톱민원창구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과 더불어 우수 사례 공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실시한 '2018년 시·군 저출생 극복 시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

■원스톱민원창구 운영 우수기관 선정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존 민원실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허가담당, 부동산관리 담당을 포함 조직을 확대 개편해 통합 운영하면서 민원처리 기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됐다.

민원접수 단계부터 검토·처리·결과 회신 단계까지 한 부서에서 신속하게 해결돼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더불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2018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민원실 문턱을 낮추기 위해 민원친절 안내도우미 운영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지원등록 시 링크 대신 전자적 지원등록스캐너를 경북도내 최초로 전용

■도 '저출생 극복 시책 평가' 대상 수상

영천시는 맞춤형 시책 발굴 및 추진과 더불어 중앙 공모사업 선정 및 인프라 유치 등 구체화 된 성과를 나타낸 점을 토대로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영천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서 'Happiness 스타(★)영천 패밀리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을 지원받은 것과 더불어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2억 5000만원 지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과 분만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개설이 확정되는 등 출산친화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은희 기자

김천시, 내년 본예산 1조60억

일자리·경제활성화 복지분야 중점 편성 공약사업 추진 탄력

김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9일 1조60억 규모(일반회계 8603억원, 특별회계 1457억원) 확정되면서 김충섭 김천시장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9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02억원(2.05%)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에는 △명품교육도시 조성 분야에 각급학교 무상급식지원 53억원, 유치원 무상급식지원 11억원, 각급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1억원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분야에 3대문화권 사업(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185억원, 부항면역역 관광자원개발 34억원, 감문군이야기나라 조성사업 33억원 등 △교통 및 국토지역개발분야에 신음공원 조성사업 150억원, 도

시계획도로 개설 391억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75억원, 도시재생사업 66억원 등 △농업분야 경쟁력 확보 분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24억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및 정비 95억원, 배수개선사업 30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29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천시는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도시 건설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도모 △미래를 대비하는 명품교육도시 조성 △삼이 여유로운 문화복지 구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19년은 민선7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이자, 우리 시가 처음으로 본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한단계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약속한 역점사업 추진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진 기자

경산시, 청년창업 자유구역 힘찬 발걸음

경산 청년 희망 창업 오디션 데모데이 캠프 김승연씨 대상 수상



경산시는 경북청중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지난 18, 19일 1박 2일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과 경산시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경산 청년 희망 창업 오디션(3차) 데모데이(Demo+Day) 캠프'를 개최해 최종 선정된 7팀에 사업화지원금 총 2350만원을 지원했다.

대상에는 파이어인더스트리 김승연(IOT 소방방재시스템), 최우수상에는 장군컴퍼니 장현진(무선충전보조배터리), 우수상에는 프리윈드 이상봉(재활의료기기), 제노픽스 채경훈(어린이전용 캐리터화장품), 장려상에는 꿈뽀 김병창·김민재(블링공 오일제거기), 청림당 변경림(만리동물 성인병 예방용 간식), 제리커피 서보근씨(대추커피)가 각각 수상했다.

3단계 서바이벌 오디션으로 진행된 '경산 청년 희망 창업 오디션' (이하, 오디션)의 세 번째 관문으로 최종 7팀을 선발한 이날 '데모데이 캠프' (이하, 캠프)에는 지난 5월에 개최된 1차 오디션과 7월에 개최된 2차 오디션을 통과한 10팀 11명의 참가자들이 현장 전문가들의 IR코칭을 바탕으로 투자전문 심사위원들 앞에서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

지난 18일 데모데이 첫날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참가팀 10팀의

IR(투자설명)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코칭 및 멘토링, IR 피칭 및 스피칭 교육을 실시했으며, 둘째날에는 경산시 실내체육관에서 IR 발표 및 투자전문 심사위원들의 심사로 진행됐다.

경산시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IR발표 행사에서는 오디션 참가 10팀의 아이디어 제품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창업 상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및 웹툰 제작 체험, VR 및 AR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창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

청년실업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잠재력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경산시에서 진행한 이번 오디션은 1차 아이디어톤(Idea-Ton: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5월), 2차 마켓톤(Market-Ton: 우수 아이디어의 시장전략 수립, 7월), 3차 데모데이(Demo Day: 시제품 및 사업모델을 투자자에게 공개, 12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내년에도 3월 모집을 시작으로 오디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준범 기자

올해 안동지역 대입 실적 '최고'

수시전형 서울대 12명 합격
명문 교육도시로 자리매김



퇴계학당 수업 모습.

안동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실적이 올해 큰 성과를 거두 명문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내 고교 학생 중 서울대 12명, 연세대 2명, 고려대 1명, 의대 1명, 성균관대 2명 등 다수의 학생들이 이번 대입 수시전형에서만 서울·수도권의 유명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동의 입시실적은 전국의 지역균형 선별을 위한 대입전형에만 의해 승패가 좌우됐지만, 2017학년도부터는 여타 수도권학생들이 지망하는 일반전형에 문을 두드릴 정도의 실력을 갖추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모두 합격생의 추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모든 결과는 안동시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이 어느 지역사회와 비교해도 굉장히 우수한 수준에 들어섰다는 증거다. 이와 같은 발전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노고들이 빛을 발한 결과로 맺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안동시 공교육지원 프로그램인 퇴계학당의 노력 또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퇴계학당의 운영방침은 입시프로그램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입시제도 속에서 학생들에게 대입준비 방향성 제시에 뜻을 두

고 있다.

특히 올해 비교과학습 부문에 많은 역점을 둔 퇴계학당은 학생들에게 학교프로그램을 입시와 연결 지어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이 공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수업을 전했다.

올해 비교과 수업의 가시적 성과의 예로는 A여고 입모 양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논술전형에서 1000 대 15의 경쟁률을 뚫고 최초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현재 논술전형은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는 최상위대학교에 진학했다.

이처럼 앞으로도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퇴계학당은 안동시민들이 수도권지역과 교육 인프라 격차로 인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자리매김하고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진학관리부분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김영구 기자



재대구군위군 개인택시향우회 교육발전기금 기탁

재대구군위군개인택시향우회는 지난 1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내 아르떼 부패에서 개최된 송년의 밤 행사에서 군위군 김영만 군수를 통해 교육발전기금 300만원을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로 전달했다. 재대구개인택시향우회는 고향의 인재육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매년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다.

농기계안전사용으로 소중한 생명 지킨다

군위군농기계센터 안전 교육 실시
농기계 정비 예산 절감 효과 기대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해 19일 교육생 80명을 대상으로 임대 빈도 및 고장률이 높은 기계를 중심으로 트랙터, 굴삭기, 드림모우어에 대해 농기계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농기계는 조그만 것도 힘이 좋아 사고 시에는 대형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사용해야하지만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기계조작이 미숙한 귀농인들로 인해 가끔 농기계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농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농기계의 원리 조작

방법, 정비방법 등 다양하게 교육했으며 농기계 고장을 저하로 현장출장 요청이 감소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의 인력효율성도 높아 질 것으로 생각하며 농기계안전사용교육으로 농업인에게는 안전을 군에는 농기계 정비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신규 농기계 사용방법을 몰라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교육을 해 주니 감사 할 따름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당부했다.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농업인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차원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모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 겨울철 농업인 교육열기 뜨거워

의성농기계센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복숭아·자두 교육 1500여명 참여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지난 18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관내 농업인 460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의성문화회관, 각 읍·면사무소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지난 18일~19일에 실시한 복숭아와 자두 교육에는 계획보다 많은 1500여명의 농업인이 참여해 최근 의성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각광 받고 있는 자두와 복숭아 교육열기가 폭발하고 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새로운 기술 및 경

영·유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정 시책 홍보와 품목 기술교육을 통해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자신감을 고취하고 재배기술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강화되는 농약허용기준(PLS)교육을 전 과정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마늘, 사과, 복숭아, 자두, 고추, 양파, 가지, 양봉 등 의성군의 주산작물에 대한 재배기술과 마케팅 및 농가경영 교육에 주력하며 희망하는 농업인은 교육 당일 교육 장소에 등록하면 교육 참여가 가능하고 자세한 일정은 의성군농업 기술센터와 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인 과정으로 구성해

내실을 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며 특히 "PLS제도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서는 영농기술 향상과 더불어PLS제도의 안전 정착을 위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에 참석한 김주수 의성군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변화의 시대에 대비하고, 우리농업과 농촌이 나아갈 길을 같이 찾아가자고 했으며 의성군산물의 공교브랜드인 '의성진'으로 유통과 마케팅을 활성화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연말연시는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나눠요

영주시 귀농귀촌연합회 재능기부
사랑의 연탄배달·도배장판 봉사

영주시와 영주시 귀농귀촌연합회(회장 이철호)는 19일 귀농귀촌 회원 30명과 함께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

로 사랑의 연탄배달, 도배장판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을 실시했다.

귀농귀촌연합회는 지난 19일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사랑의 연탄 배달 재능 나눔 활동은 7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2100장을 도배장판은 3가구를 그리고 8가구를 대상으로 필요로 하

는 재능 봉사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영주시와 영주시귀농귀촌연합회는 재능기부활동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집들이행사, 귀농귀촌인 사랑방 운영,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상호 협력해 귀농귀촌인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영주시 귀농귀촌 연합회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전상기 기자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교수·여행작가 등 16명 구성

예천군은 20일 오전 10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예천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가졌다.

이번에 구성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는 지역의 관광정책 방향과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서, 대학의 관광학 교수, 대구경북연구원, 관광진흥원 연구원, 관광공사 직원, 여행작가, 관광드래PD 등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미래 주력 산업으로 평가받는 관광 분야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경북도정의 역점시책으로서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

를 받으며, 향후 운영 결과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 위원은 "예천군은 체험관광과 건강·힐링 지향형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통합관광 수용태세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또 다른 위원은 "예천군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임에도 관광객 수용태세, 특히 관광숙박시설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약점"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조합을 구성해 자생적인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 깊은 발표를 했다.

한편, 예천군 관계자는 "분야별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아 탄력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체계적인 귀농 교육 "영주에서 받으세요"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입교생 모집
내년 1월 18일까지 방문 접수

영주시는 농업창업에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에서 생활하며 귀농교육을 받는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영주시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은 가족형 12세대(55.45㎡), 원룸형 18세대(26.36㎡) 총 30세대가 10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1단계 농업기초교육 100시간 △2단계 농업기본교육 100시간 △3단계 농업전문교육을 이수하면서 관심분야 작목의 선택과 귀농·귀촌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반을 운영해 귀촌인들이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미술 작품 전시회를 실시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입교를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은 내년 1월 18일까지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를 작성해 영주시 소백산 귀농드림타운(경북도 영주시 창진로 299-31)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 및 보증금은 선납이며 원룸형은 보증금 30만원, 원룸형은 보증금 150만원이다. 투룸형은 보증금 60만원을 포함해 300만원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교육과정을 통해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의 이름처럼 귀농귀촌의 꿈을 이루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영주시가 제2의 고향이 되고 귀농·귀촌인들과 지역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교수와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은 054-639-7323번으로 전화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전상기 기자

영양군 신소득 고추·자색마 재배교육 성황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영양군지회
2018년 정기총회·농민대학 개최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영양군지회(회장 권명달)는 19일 영양농협 대회의실에서 '2018 정기총회 및 농민대학'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부 농민대학을 개설해 신소득 고추 재배 교육과 고추 부직포 조기 다수확재배 및 새로운 소득

작물인 자색마 재배교육을 하는 자리로 회원 및 관심 있는 농가에서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1963년에 발족한 전국 단위 농업인 단체로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와 과학적 전문화 및 합리적 복지화'를 이룩하자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조직된 단체로 이날 정기총회에는 200여명의 회원과 오도창 영양군수, 김형민 영양군의회 의장 등 내외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오도창 영양군수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우리 농업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영양군에서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농업을 영양군 최고의 산업으로 육성해 살기 좋은 농촌,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권용동 기자

봉화군 치매안심센터 개소
치매예방 경제적 부담 경감

봉화군은 20일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임태항 봉화군수와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 신명준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개소식은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치매예방체조"를 시작으로 본 행사, 테이프커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봉화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8월부터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보건소 3층을 리모델링해 580㎡ 규모에 검진실, 치매쉼터, 프로그램운영실, 가족카페를 갖추고 이날 개소식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봉화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음악·미술 등 오감 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인지 및 신체기능 증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경증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악화 방지는 물론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기 기자

원추의 오늘 운세 (음력 11월 15일 정해)

자신의 위치가 지금 인생 항로에서 어느 지점인지 모르는 것은 아닌가. 자기 수양에 힘쓰면서 과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때다. 2, 8, 11월생 자만은 금물. 건강에 특히 신경 쓰라. 소화 장애로 고생할 수. 1, 3, 6월생 검은색 삼갈 것.

필요 이상 불평불만하지 말라. 상대도 내 마음을 알고 있다. 욕심을 그만 부리라. 1, 5, 11월생은 마음을 비우고 넓게 보면서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다면 큰 큰 뜻이 될 듯. 1, 5, 8 성씨는 일찍 귀가 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라.

지금 비록 힘들고 지쳐도 낙심은 금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는 법. 7, 8, 9 성씨는 서서히 운이 열릴 수. 미혼자는 결혼이 다소 시간이 지연할 듯하니 때를 기다리라. 11월생은 2, 8월생을 피함이 좋을 듯.

명예보다 사업에 신경 쓰라.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현재 위치를 지키는 길만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2, 4, 10월생은 멀리 여행이나 산행은 오늘 하루 하지 말라. 소화제 좋지 않으니 음식이 많은 곳을 피하라. 몸 관리 철저.

진실한 마음이 주위에 비치니 여기저기서 도움이 손길어 올 수. 희망을 품고 착실하게 노력하니 마음에 안정과 여유가 찾아온다.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길하고, 문서 관계에도 이득이 있겠다. 4, 5, 6월생은 푸른색으로 단장하라. 복록이 길.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는 말과 같이 9, 10, 11 성씨는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말없이 주어진 일에 전념하면 도움 줄 자 나타난다. 애정은 옛것에 끌리지 말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도전하라.

순조롭게 나이도 막히기 쉬우니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시간을 가지라. 애정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린다. 금전 문제도 문서 건으로 이득이 생길 수. 3, 10, 12월생 사업가는 번. 원숭이, 돼지띠와 같이 하면 길.

새로운 계획에 좋은 결과 있을 듯. 의욕을 갖고 능력을 한껏 발휘할 시기다. 금전적인 이득도 생길 수. 심신 피로는 자신이 알아서 체크하며 주의하라. 10, 11, 12월생은 기본 전환할 시간이 필요. 산을 벗 삼아 여행으로 재충전할 것.

착실함을 제일로 해 성공함이나 경솔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최고의 날이 될 듯.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에 성과가 있겠다. 7, 9, 12월생은 제아무리 상대에게 잘 해준다고 해도 애정은 멀어진다. 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유를 주라.

현재 순탄함의 연속이지만, 무모한 일에 손을 대면 실패한다. 2, 5, 8, 12월생은 믿음의 결실만 기대하고 그 이상을 탐하지 말라. 남에게 배우는 여유를 가지라. 애정은 혼자 속 태우지 말고 친구나 워터러에게 도움을 청하라.

인내심이 강하고, 끈기 있는 자에게 최상의 날이다. 매사 느긋한 자세로 참고 노력하라. 의외로 좋은 결과가 기다리니 힘을 내라. 7, 8, 9 성씨는 하연 된다. 용기가 절대 필요한 때다. 아내 역시 내조로 협조함이 좋겠다. 노란색이 길.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의를 품고 행동하라. 신중하게 행동하면 서서히 풀리는 운이다. 10, 11, 12월생은 애정 문제로 오랜만에 기쁜 날이나 멋진 시간을 보내라. 10, 11, 12월생은 녹색을 피하고 검은색으로 단장하라. 관세주 조심.

'2018 인디컬처포럼' 26일 열린다

대구 인디뮤지션 등 다양한 장르 공연예술가들 함께 진행 내년 준비하는 예술가들 포럼

'2018 인디컬처포럼'이 오는 26일 대구를 약칭작소 2층 나래홀에서 개최된다.

'2018 인디컬처포럼'은 '2018 대구독립음악제'의 일환으로 대구독립음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보는 학술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대구의 인디뮤지션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공연활동을 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도 참가한다.

포럼과 더불어 독립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대구에서 이뤄지는 전반적인 독립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드림킹소년소녀합창단의 배미나가 '대구 인디뮤지션의 해외진출:DIY해외투어' △취반칸의 양동기대표가 '공연기획자로서 돌아보는 2018년' △탐슨(박정빈)의 '대구청년예술가로서의 활동들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가 끝난 후 포럼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모여 2019년 대구의 공연예술 및 활동방향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가 열린다.

신동우 기획팀장은 "인디뮤지션들이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인디컬처포럼이 대구 음악발전의 거점공간인 대구음악창작소에서 열린다"며 "이번 포럼은 인디뮤지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독립예술가들이 참여해 전반적인 독립문화 및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돼 뜻깊다"고 말했다. 박지수 기자

국립대구과학관, '파인만의 물리 이야기'

리처드 파인만, 삶과 과학 통해 살펴보는 '원자로 이뤄진 세계'

국립대구과학관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리처드 파인만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오는 24~내년 3월 31일까지 '파인만의 물리 이야기' 교류특별전을 개최한다.

리처드 파인만(1918-1988)은 양자전기역학(QED)을 완성한 공로로 1965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자이다.

이번 특별전은 △리처드 파인만 △원자를 발견하다 △움직이는 원자 △원자에서 세포까지 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리처드 파인만'에서는 파인만의 주요 과학적 업적, 과학에 대한 파인만의 견해 등을 소개한다. 김대훈 기자

'원자를 발견하다'에서는 인류가 원자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 원자모형의 진화과정, 빛과 물질의 이중성 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다.

'움직이는 원자'에서는 보이지 않는 입자의 운동을 원자적 관점에서의 체험, 절대온도와 압력,브라운운동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원자에서 세포까지'에서는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 DNA, 단백질과 물질의 기본 단위인 분자, 원자의 시각적 모형을 살펴봄으로써 생명과 물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류특별전 '파인만의 물리 이야기'는 국립대구과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파인만과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2000원이다. 김대훈 기자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바다!' 특별전

국립등대박물관 해양안전 특별전 내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시

포항 호미곶에 위치한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소속 국립등대박물관에서는 해양안전의 중요성 및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바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2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은 여객선 기초안전수칙, 여객선 구명설비 위치, 소형선박 기초항법, 물놀이 안전수칙, 해양안전 포스터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기초상식을 패넬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구명뗏목, 구명부기, 구명조끼, 구명환 등 선박 위급상황에 대비한 안전장비를 실물 전시하며 여객선 비상시 생존기술, 구명뗏목 작동법 등 해양안전 관련 영상을 상영한다.

아울러 선박 좌초, 침몰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안전장비 사용법을 가상현실(VR)장비를 통해 체험해 보고, 구명조끼 만들기(데코샌드)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해양안전 체험교실도 함께 운영한다.



해양안전 체험교실

김양규 관장은 이번 해양안전 특별전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교육과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해양안전문화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관심이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축적된 시공간 경주
오늘의 시선을 담다



이경희 작가 '필름 맵'



이계영 작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김남기 작가 '파편과의 조우'



최성식 작가 '끝나지 않은 이야기'

경주 솔거미술관 첫 사진전 김남기·최성식 등 4명 참여

경주를 새로운 시선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사진전이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2018년 하반기 마지막 특별기획전인 '경주, 색다른 시선'이 내년 2월 24일까지 솔거미술관 기획전시실1, 2에서 개최된다.

김남기, 최성식, 이경희, 이계영 등 경주를 주제로 4명의 작가가 도시 곳곳을 누비며 그들의 앵글로 바라보는 경주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다.

황룡사터, 패릉, 보문, 첨성대 등을 배경으로 한 김남기 '파편과의 조우' △최성식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경희 '필름 맵' △

이계영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1전시실은 유적과 유물의 흔적,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공간을 넘어 경주의 이야기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 12점으로 구성됐다.

2전시실은 작가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반영해 그 곳 고유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개념을 이끌어낸 작품 9점을 선보인다.

김남기 작가는 "사진은 기록성과 현장성을 갖고 있지만 작가의 개성있는 시선과 새로운 관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화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며 "사진을 통해 경주라는 주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오래된 도시의 축적된 시·공간 속에서 오늘의 시선을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대구 아양아트센터, 己亥年 '황금돼지 꿈'展

미술가 100인의 새해 희망 메시지

대구시 동구문화재단 아양아트센터가 '2019 己亥年 새해맞이 '황금돼지 꿈'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 돼지(亥) 해'를 맞이해 지역 미술가 100인이 새해와 돼지를 소재로 제작한 작품 110점을 전시한다.

참여작가로는 이동록, 우희경, 남학호, 김상

욱, 이우석, 조은희, 정연주, 김상용, 김준용, 최영근, 이명희, 정성철, 전일명, 김연화, 김정기 등 100여명이다.

출품작으로는 △홍윤식(서양화) 작가의 '정' △우희경(도자 공예) 작가의 '돼지들의 향연' △김우정(서양화) 작가의 'happiness' 등이 있다.

또한 부대행사로 '나만의 가족장신구 만들기', '감사엽서 보내기'가 마련됐다.

박지수 기자

강한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편집인·편집장 김성용 주간 김재열 대구시 동대구로 85길 60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a social campaign. It features an illustration of a pregnant woman standing in a subway car, surrounded by other passengers. The text reads: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Pregnant woman's care seat, for whom is this seat?). Below the illustration, it says: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For the precious life that will be born into the world, please give up your seat for pregnant women and children with a warm heart. Your small kindness will be returned as a larger kindness.) The logo fo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Media Development Foundation) is at the bottom right.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이준섭 대구지방경찰청장의 특강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계명대, 경찰공무원 등 77명 배출

경찰행정학과, 경위 3·순경 44명
검찰·법원·소방직 공무원 등 22명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올해 경찰공무원 간부후보생 △경위 3명 △순경 44명 △검찰·법원·소방직 공무원 등 21명 △공기업 및 일반 기업 9명 등 77명을 배출했다.

계명대학교는 교과과정 내에 경찰공무원을 비롯해 검찰직, 법원직, 교정보호직, 일반직 등 공무원 전 분야에 준비하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문 유도 교수를 초청해 유도 실기수업 진행 △학교 내외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캡폴(캡퍼스 폴리스)' 제도 운영 △경찰관으로서의 간접체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장은 "경찰 관련학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창설돼 우수 인재 배출에 매진해왔다.

그동안의 노력이 지속적인 결실로 나타나 기쁘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수 기자

대입 정시 192대학 8만2천명 모집

작년보다 약 8000여명 줄어
수능 어려워 상위권 변별력 커질 듯
국어 성적 따라 지원 방식 결정

오는 29일부터 전국 192개 4년제 대학교에서 2019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시작된다.

대학들은 정시로 8만273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체 대학교 정원의 21%다.

지난해에는 이 방식으로 9만772명(26%)을 뽑았다.

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정시 일반 전형으로 7만9042명 △고른 기회대상자 등 특별 전형으로 1396명 △농어촌 학생 등 정원 외 전형으로 2296명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세부 전형별로는 192개 전체 대학교가 수능 위주 전형으로 7만2044명을, 129개 학교에서 실기 위주 전형으로 9783명을, 66개 학교에서 교과별 학생부 위주로 313명, 48개 학교가 종합 학생부 위주로 436명, 38개 학교에서 재외국민 등 160명 선발한다.

각 '군'별 모집 인원은 가군 3만859명(139개 학교), 나군 2만1058명(135개 학교), 다군 2만707명(121개 학교)이다.

원서 접수는 모집 군에 관계 없이 오는 29일-내년 1월3일까지다.

전형 기간은 △가군 1월 4-11일 △나군 1월 12-19일 △다군 1월 20-27일이다. 합격자 발표는 같은 달 29일까지 모두 마쳐야 하며, 합격자 등록 기간은 30일-2월 1일이다.

수시 모집 최종 합격자(총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모집 군별로 한 개 대학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 개의 모집 군에서 2개 대학 이상 지원하는 경우 대학입학지원명부 위반자가 돼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다만 3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나 학교 간에는 복수 지원 금지 및 이중 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올해 수능은 전 과목이 어려워 상위권 대입 변별력이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는 국어 영역 성적이 높을수록 정시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뉴스

대구한의대, 미국서 경북의료관광 홍보설명회

의료관광 지원센터·안동병원 등 참여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경북도 의료관광 활성화 및 해외 환자 유치에 위해 경북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에서 경북의료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은 경북도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해외에 홍보하고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Golden Silver Medi-GyeongBuk 브랜드 구축사업(황금빛 노후를 위한 경북 의료관광)'에 선정돼 경북도로부터 총사업비 3억7200만원을 지원받아 8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경북도관광공사 내 의료관광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동병원과 경산세명병원, 구미강동병원, 포항우리들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육성 및 통·번역 사업, 특화 의료기술 홍보 동영상 제작, 해외 협력기관 초청 학회 및 의료인 연수, 해외 홍보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의 노인성 질환 치료의 특화된 의료프로그램 홍보 및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경북의료관광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경수 기자

경북교육청, 전국 과학교육 평가 우수한 성적 거둬

경주 계림고·구미여고 최우수 선정

경북교육청이 '2018학년도 전국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 127개 과학중점학교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평가단이 실시한 평가에서 '경주 계림고', '구미 여자고'가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학생과제 연구 평가에서는 '문경여고'가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학생참여형 과학교육 선도학교는 탐구·참여 등 학생 활동 중심 수업으로 개선을 통해 즐거운 과학교육 실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구미 선산초'가 최우수교로 선정, '봉화중'이 우수교로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창의성, 인성을 두루 갖춘 미

래형 인재를 육성하고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계명문화대, 사랑의 손길로 장학금 전달

새생명 의료비 장학금 1320만원 전달



계명문화대학교 교직원들로 구성된 '(사)계명문화1퍼센트 사랑의 손길'이 지난 18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14명의 재학생들

에게 새생명 의료비 장학금 1320만원을 전달했다.

'(사)계명문화1퍼센트 사랑의 손길'은 2009년 설립돼 2012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과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15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설립이후 지금까지 지원한 장학금은 1억 3000여만원이다.

박명호 (사)계명문화1퍼센트 사랑의 손길 이사장은 "교직원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장학금이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수 기자

대구교육청, 예비고등학생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배부

대구교육청이 '예비고등학생을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제작해 대구 내 중학교에 배부한다.

가이드북은 예비고등학생들에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기본사항, 평가 기준 및 그에 맞는 대비 전략을 통해 한발 빨리 고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고자 기획했다.

'예비고등학생을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은 △대입전형 이해하기 △학생부종합전형 이해하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파악하기 △'학종' 합격자들의 비결 알아보기 등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북은 교실에 비치돼 수시로 열람해 학생들이 가이드북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진로진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한발 빨리 고교생활을 준비해 대입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고등학생을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은 예비고등학생들에게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대입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 가이드북이 고등학교에 입학 후 학생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고교 생활을 설계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수 기자

동부교육지원청, 자유학년제 안착 총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

동부교육지원청이 20일 중학교 자유학년(학기)제의 성공적 운영과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VR, AI, 3D프린터, 레이저 커팅,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및 메이커 교육과 관련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관내 중학생들에게 제공

할 예정이다.

박영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메이커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고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자유학년(학기)제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수 기자

www.forme.or.kr

뉴스를 이용한 교육에 후원하세요

IT시대의 새로운 기부, 디지털 교육콘텐츠 후원 기업 모집

지역소재 초·중·고등학교에 e-NIE 프로그램 사용료를 후원할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모집합니다.(프로그램 내 기업로고 삽입 및 필업홍보 제공)

관련상담 및 문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02-2001-7791~7 / News@kpf.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e-NIE 프로그램(e-Newspaper in Education)

신문진흥교육(NIE)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개발한 [교육용 웹 프로그램]으로, 미디어교육자료(www.forme.or.kr)를 통해 이용

45개 신문에게 뉴스를 매일 PDF 파일로 제공하여 교사나 학생이 손쉽게 검색, 편집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양방향 소통으로 읽기·쓰기 교육은 물론 올바른 미디어 이해와 진로·직업·안익교육 효과로 학교생활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 참가
(우승·준우승·3위 장학금 지급)

꿈나무육성

제5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2019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5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시일보사
주관 대구광역시일보골프클럽



참가규모 95팀(학생부 포함 384명)

2월 20일까지 선착순 마감
2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경주현대호텔 대연회장 저녁 6시

-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고 및 남·여 아마추어
- ▣ 학생부 참가비: 15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일반부 참가비: 19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 352-1400-8617-53
예금주: 박경선(대구광역시일보골프클럽)
- ▣ 접수기간: 12월 13일-2019년 2월 20일까지 선착순 마감
-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053)257-0000
(053)253-0000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